
		<b>보 도 자 료</b>			
		배포 일시	2021. 9. 15.(수) 총 13매(본문 4, 붙임 9)		
담당 부서	원양산업과	담당 자	• 과장 이규선, 사무관 이성재, 주무관 라은교 • ☎ (044)200-5360, 5361, 5362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기업 키운다

### - 원양어선 신조·개조 및 간편식 개발 지원 등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쟁력 있는 중견·강소 원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선 신조·개조와 원양 수산물 간편식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15일(수)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국내 연근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며 국내 수산물의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산 자원이 감소하면서 연안국의 입어료가 상승하고, 투자·공적개발원조(ODA)사업 및 조업쿼터 간의 연계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원양어선의 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원양어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원양산업', '원양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 원양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3.7조의 매출액을 2026년까지 4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5가지 원양 재건계획(5-RE)으로, ①안전·책임 강화(Reinforcing), ②어장확보 협력(Redeveloping), ③국제규범 대응(Regulation-Resilience), ④고부가가치 산업육성(Re-value), ⑤선원육성(Rebuilding manpower)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 ① 안전·책임 강화) 안전성 개선, 정부펀드·민간금융 지원으로 신조 확대

먼저, 국제 어선안전협약인 케이프타운협정\* 내용이 반영되고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표준 어선형'을 개발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케이프타운협정 : 24미터 이상 공해 조업 어선이 적용 대상으로, 선체 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하는 국제 어선안전 관련 협정

현재 국내 원양어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참치 연승어선의 자동화 기획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표준 어선형이 개발되면 선박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선원의 복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양어선 노후화에 대응하여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확대하여 원양어선의 신조와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 등을 활용한 업종별 원양어선 대체건조 방안도 확보할 계획이다.

### ② 어장확보 협력) 정부개발원조(ODA) 연계 강화, 철수어장 복원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원양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를 수원국에도 이식하여 주요 조업국인 남태평양 도서국에 주민들의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원양 어선의 조업 쿼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원국의 니즈를 반영한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선착장 개선, 어촌·어항 현대화 등 수산·관광산업 활성화 추진(1개소, 3년 사업, 20억원, 총 60억원) 검토

아울러, 현지합작 조업·유통·가공 지원 및 민·관 합동 해외자원조사 등을 통해 북태평양에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어장으로 북태평양 빨강 오징어 채낚기 어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규 오징어 어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③ 규범 대응)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어획인증 확대

유통업체 승선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감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전자 모니터링(EM)을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획장면 등을 촬영하는 전자 모니터링(EM) 도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기술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관할 수역에서 조업 중인 연승어선에 시범사업(2020. 12.~2021. 12.)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로써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Illegal, Unregulated, Unreported

또한, 최근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결정할 때 위생·품질 외에도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생태계 보호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원양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어획인증(MSC\*)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Marine Stewardship Council : FAO와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ISEAL)에서 정한 모범 운영지침을 모두 충족하여 잡는 어업(어획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유일한 인증

### (④ 고부가가치) 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 및 원양 전략품목 육성

최근 배송·구입·조리가 쉬운 간편식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원양업체에 간편식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식품 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연근해 중심으로 '21년까지 90억 원 투자, 어묵전병 등 16개 간편식 개발 추진 중

또한, 국내 수산 가공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생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양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원양 수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 부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생산액 기준 상위 품목 중 잠재력이 높은 품종인 다랑어류, 이빨고기, 오징어를 원양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다랑어류) ①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마케팅 지원 ②가공업체의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용 지원  
(이빨고기) 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지원  
(오징어) 가공용 오징어 어장 확보 및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 어장진출 지원

### (⑤ 선원육성) 선원 인력 양성 및 복지 개선, 홍보 강화

현재 격년제로 운영되는 오션폴리텍 원양어선 해기사 교육 과정을 매년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원양어선에 안정적으로 선원인력이 승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계 고등학생을 원양어선 해기사로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선상에서의 인터넷 사용, 해상근무 중간 휴식기 도입 등을 통해 선원들의 복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 세계적인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원양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강화방안이 우리 원양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1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요약)

### 1. 원양산업의 여건 및 현황

□ (대외여건) 전세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감소로 원양 어업을 비롯한 포획어업 생산량 지속 감소, 단가는 지속 상승

- (생산량) 양식어업 생산량은 '18년 기준 약 8천만톤으로 '11년 대비 약 34% 증가함에 비해 포획어업 생산량은 약 2% 증가

\* (양식) ('11) 6.2 → ('18) 8.2천만톤 / (포획) ('11) 8.2 → ('18) 8.4천만톤

- (소비시장) 중국의 수산물 수요 급증으로 소비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물이 아닌 가공 수산물(HMR 포함) 소비 확대\*

\* 현재 전세계 생산 수산물의 약 88%가 가공 수산물로 소비되고 있으나, '26년에는 약 92%가 식품으로 소비될 전망(FAO)

- (조업여건 현황) 전반적 원양 자원감소로 연안국의 입어로 상승, 투자·ODA의 조업쿼터 연계정책 등으로 조업여건 악화

□ (대내여건)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국제규제 강화 등으로 국적어선의 생산량은 44만톤('20년)으로 지속 감소(연근해 93만톤의 약 47% 수준)

\* 원양 생산량(만톤) : ('90) 92 → ('16) 45 → ('17) 44 → ('18) 46 → ('19) 51 → ('20) 44

\*\* 연근해 생산량(만톤) : ('90) 147 → ('16) 91 → ('17) 93 → ('18) 101 → ('19) 91 → ('20) 93

- (종사자) 44개 선사에서 육상직 근로자 약 5천명, 승선직 약 5천명이 원양업계에 종사하며 그중 아국 승선직\*(어선원) 지속 감소

\* 선원 현황(명) : ('11) 2,053 → ('13) 1,905 → ('15) 1,492 → ('15) 1,406 → ('19) 1,369

- (연관산업) 등록 수산가공업체 약 5,400개소(8만명) 중 원양산 취급 업체는 약 20개소(약 3천명)로 추정(전체의 0.4%, 원협 자체조사)

#### < 전세계 원양에서 우리 원양의 위치 >

□ (세계 원양 현황) 전세계 원양어업 생산량은 약 440만톤('14)으로 생산량 기준 중국(152), 대만(55), 한국(40), 스페인(25), 일본(21만톤) 順

- (우리 원양업 현황) 생산량 기준 세계 3대 원양강국으로 '20년 기준 생산량 44만톤, 조업척수 210척, 수출액 4.4천억원(잠정)

### 2. 비전 및 전략 방향

비 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기업 육성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양어업 생산량 : ('20) 44만톤 → ('26) 48만톤 (연평균증가율 1.5%)</li> <li>■ 원양산업 매출액 : ('20) 3.7조(잠정) → ('26) 4.0조 (중견기업 8 → 10개)</li> <li>■ 원양어선 신조(누적) : ('20) 5척 → ('26) 14척 (신조계획, 누적)</li> <li>■ 간편식 레시피 개발 : ('20) 0개 → ('26) 5개 (연간 1개 개발, 누적)</li> </ul>

#### 발전 전략 방향

- 어선신조, R&D 등 정부 주도 원양산업 혁신 추진
-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원양어업 경쟁력 제고
- 고부가가치 어종 확대 및 간편식 식품 개발로 수요 창출

정책분야 : 5-Re		중점 추진과제	
1	안전·책임 강화 Reinforcing	1	원양어업 조업 자동화·기계화 추진
		2	안전펀드를 통한 원양어선 신조 확대
2	어장확보 협력 Redeveloping	3	ODA 연계 강화를 통한 해외어장 확보
		4	과거 철수어장 복원, 연안국 조업어장 개발
3	국제규범 대응 Regulation-Resilience	5	EM도입을 통한 규제 선제 대응
		6	MSC 등 지속가능한 어획인증 확대
		7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4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Re-value	8	간편식 개발 지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
		9	원양수출기업 체계적 육성
		10	원양 전략품목 지정 및 육성
5	선원 육성 Rebuilding manpower	11	선원인력 양성
		12	선원 복지개선
		13	원양산업 대국민 홍보강화

### 3. 주요 추진 과제

#### ① 안전책임 강화 원양어업 조업 자동화·기계화 추진

- (현황·문제점) 원양어업 생산수단의 노후화 등으로 생산성 저하
  - 국내 원양어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참치 연승어업의 경우, 자동화 수준이 낮아 수작업으로 조업함에 따라 생산성 저하
- (추진계획) 케이프타운협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표준 어선형을 개발하여 원양선박의 안전성·생산성 개선
  - \* 선체 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하는 국제 어선안전 협정
  - 표준선형이 개발된 선박위주로 정부편드를 지원하고, 여타 업종은 업계규모를 고려하여 민간금융 도입, 중고선 대체 지원('22~)

#### ② 안전책임 강화 안전편드를 통한 원양어선 신조 확대

- (현황·문제점) 선박 노후화로 사고 우려와 선원 거주여건 불량
  - 원양어선 대부분이 '60~'80년대 건조된 노후어선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선원의 승선 기피와 낮은 어업생산성 문제가 상존
- (추진계획) '23년까지 1,700억원(정부출자 850억)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편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 신조 및 대체건조 지원

#### ③ 어장확보 협력 ODA 연계 강화를 통한 해외어장 개발

- (현황·문제점) 과거 물자지원 위주 ODA사업이 개도국 역량개발 중심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태평양 도서국 지원 상대적 저조
- (추진계획) 주요 어장을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수원국 니즈를 반영한 ODA 지원 연계를 통한 쿼터 확보(뉴딜, 역량강화 사업 연계)
  - 남태평양 도서국 주민들의 필수 생활기반 시설(어촌뉴딜 300\*, 안정적 식수를 위한 조수기 설비) 설치사업 우선 추진
  - \* 어촌·어항 현대화 등을 통해 수산·관광산업 활성화 추진(3년 사업, 연간 20억원)

#### ④ 어장확보 협력 어장 복원 및 연안국 조업어장 개발

- (현황·문제점) 서아프리카(트롤 IUU)와 북태평양(유자망 금지) 어장 상실
- (추진계획) 현지합작(조업·유통·가공) 지원 및 민·관 합동 해외자원 조사 등을 통해 신규어장(아프리카, 북태평양) 확보 추진
  - (아프리카) 현지합작 형태의 어업 확대, 현지 매입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지원 등을 통한 신규 조업어장 확보 추진
  - (북태평양) 오징어 대체어장으로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진출
  - \* '21년 현재 시험조업 형태로 채낚기 1척 조업 중으로 향후 20척으로 확대 추진

#### ⑤ 규범 대응 EM도입을 통한 IUU어업 관리 강화

- (현황·문제점) 읍저버 승선률이 낮은 업종(연승 등)에 대한 IUU 어업 감시 한계로 국제기구 등에서 EM(전자모니터링) 도입 논의 중
- (추진계획) 읍저버 승선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어구 투·양승, 어획장면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IUU 감시 강화
  - EM 도입시 경제적·기술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 ①연구용역, 시범사업\* → ②사전시행 → ③제도확립 단계별 도입
  - \* WCPFC(중서부태평양) 연승어선 1척 시범사업 진행 중('20.12~'21.12)

#### ⑥ 규범 대응 MSC 등 지속가능한 어획인증 확대

- (현황·문제점) 최근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결정 요인에서 위생·품질 외에도 '가치 소비(value consumption)' 지향 추세
- (추진계획) 생태계 보호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원양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및 시장 확대 등을 위해 MSC\* 인증 지원 확대
  - \* Marine Stewardship Council : FAO와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ISEAL)에서 정한 모범 운영지침을 모두 충족하여 잡는 어업(어획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유일한 인증
  - MSC 인증 취득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 심사관(읍저버\*) 양성 및 MSC인증 취득 전 심사기관(한국소재 MSC 위탁기관)을 통한 사전 컨설팅 지원('22~)
  - \* 한국인 읍저버(50여명) 중 심사관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7 규범 대응

##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 (현황·문제점) 케이프타운협정 비준 등 국제사회의 안전관리 요구 및 국회 등에서 원양어선 안전관리 역량강화 요구 증가
  - (추진계획) 국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국제협약을 조기비준\*하고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 외교부 제출(‘21. 10.) → 법제처심사(‘22. 3.) → 국무회의(‘22. 6.) → 국회심의를결(‘22. 下)
- 국제 원양어선의 항만국 검색, 특별안전점검 및 해사안전감독관 권한 강화를 통해 원양어선 안전관리 감시·감독 기능 강화

## 8 고부가가치

## 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

- (현황·문제점) 고품질 수입 연어 간편식 제품에 시장 잠식, 활어 소비에서 배송·구입·조리가 쉬운 간편식으로 소비패턴 변화
- \*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편식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참치주먹밥 등 개발제품 한정
- (추진계획) 해외·내수 HMR(가정 간편식) 시장 선점을 위해 원양 간편식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입점 유도
- \* 연근해 중심으로 ‘21년까지 90억원 투자, 어묵전병 등 16개 간편식 개발 추진 중
-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확대 및 민간(원양산 취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

## 9 고부가가치

## 원양수출기업 체계적 육성

- (현황·문제점) 수출 중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권역별 가공·R&D·수출을 연계한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20)
  - (추진계획)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생산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양기업 지원 확대
- 지역별 거점단지, 클러스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에 원양 관련 기업 참여 유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22~)

## 10 고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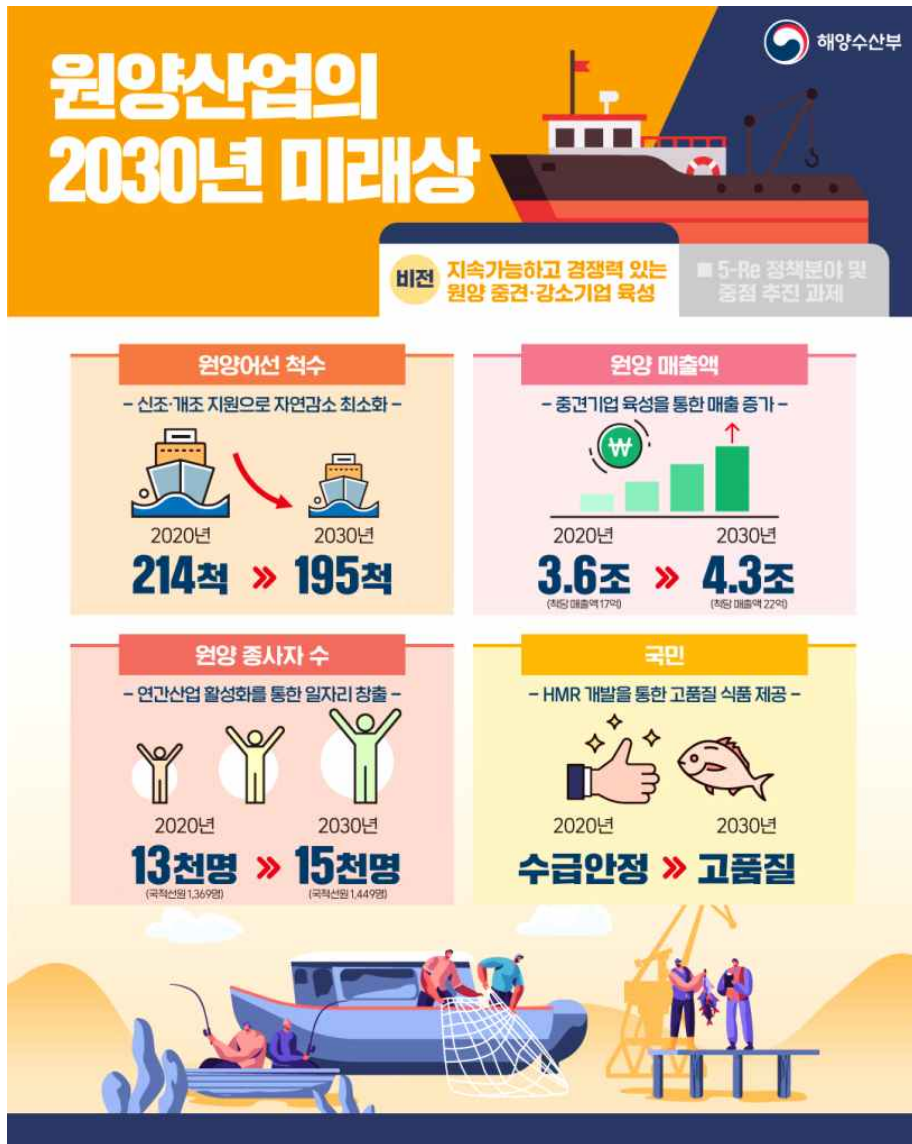
## 원양 전략품목 지정 및 육성

- (현황·문제점) 김, 전복, 광어 등 수출 주요 어종 등을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원양 어종은 지원 미미
  - (추진계획) 다랑어류, 이빨고기 및 오징어를 원양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육성
- (다랑어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① 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마케팅 지원, ②가공업계의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용 지원
  - (이빨고기) 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지원
  - (오징어) 가공용 오징어 어장 확보 및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 어장(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채낚기 어장) 진출 지원

## 11 선원 육성

## 선원 인력양성·복지개선 및 홍보강화

- (현황·문제점) ‘19년 기준 원양 어선원은 5,238명이며 외국인이 74%(3,869명)를 차지하며, 승선 기피로 안정적 선원수급에 한계
- 선내 거주공간 부족, 인터넷 환경 열악 등으로 젊은 층은 원양 어선 승선 기피, 원양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 (추진계획) 원양 어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원 양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원양산업의 중요성 대국민 홍보 추진
- (인력양성) 수산계 고교 취업 지원, 오션폴리텍 집중교육\*, 해기사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 \* 격년제로 운영되는 원양어선 해기사 교육 과정 연간 운영 추진(2년 40명 → 1년 40명)
- (복지개선) 원양어선 내 인터넷 시설 도입(~’21), 해상근무 중간 휴식기 도입 및 해양원격의료 사업 지속 확대(‘21~)
  - (홍보강화) 원양산업의 가치·중요성 관련 홍보(‘이달의 수산물’ 원양 수산물 선정 등) 추진 및 원양의 긍정적 콘텐츠 대국민 홍보



# 5-Re 정책분야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건·감소기업 육성

■ 5-Re 정책분야 및  
중점 추진 과제



원양어업 조업  
자동화·기계화추진

01

안전·책임  
강화

ReReinforcing



안전편드를 통한  
원양어선 신조 확대



ODA 연계  
강화를 통한  
해외어장 확보

02

어장확보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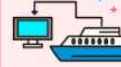
Re-developing



과거 철수어장  
복원, 연안국  
조업어장 개발

03  
국제규범  
대응

Regulation  
Resilience



EM 도입을 통한  
규제 선제 대응



MSC 등  
지속가능한  
어획인증 확대



간편식 개발  
자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

04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Re-value



원양수출기업  
체계적 육성

05

선원  
육성

Rebuilding  
manpower



선원인력양성



선원 복지개선